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부활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님께 영광(찬155/새165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권조원 장로 2부/박종민 장로 3부/김근수 장로 4부/신영록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 하나님 크시도다/할렐루야(작곡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고린도전서 15:1-1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4:32-52
- 말씀 Message1, 2, 3부.....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나의 오늘을 위한 사건, 부활의 복음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1) 아,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예수 나의 산 소망
- 헌금 특순 Offering.....Call 2 Christ Dance C2C 크리스천 청소년 댄스팀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 *축도 Benediction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부활절 인사

Resurrection Day Greeting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Study leave를 받아 한국 양평에 있는 신학교에 책상 하나를 구해, 논문을 위해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봄이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을 것 같았는데, 팔당을 넘어 학교로 가는 강변 길은 어느새, 온통 벚꽃과 개나리꽃 그리고 유채꽃들로 만발이었습니다. 부활절을 향해 온 산천이 행진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방문 때 운전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직접 운전하면서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신호등 시스템이 미국과 조금 다르지만, 금방 적응했고, 뒤로 주차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동네 앞에 걸어 나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행히 맛있는 짜장면집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미미카페 아침이 그리워 이태리 식당을 찾아서 양식도 찾아 먹습니다.

베델의 예배를 영상으로 동참하면서 성도들이 저의 논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공부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논문을 쓰는 목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많은데, 최선을 다해 논문에 필요한 이 책 저 책 읽어가며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엔 강단을 교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경갑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빈자리를 티 나지 않게 채워주는 베델 교역자들과 리더십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기도부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간은 제가 처음으로 겪는 것들이 몇 있습니다. 한국에서 벚꽃이 만개한 것을 처음으로 본 것이고, 한국에서 운전하고 다녀 보기도 1988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본 교회를 떠나 지내본 경험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장 바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한국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비었던 자리들이 기도의 자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 마스크 벗고 모이는 첫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와 부활절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몰고 오는 싸인을 여기 저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싸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셨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때마침 화제를 모았던 에스베리부흥의 소식도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부흥의 염원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가정마다 무덤 문이 열리듯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회복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아침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Happy Resurrection!

On this Study Leave, I traveled to a theological school in Yangpyeong, Korea, where I acquired a desk and began research for my thesis. Although it seemed like we had to wait a while for spring to give way from this chilly weather, crossing through the Paldang district to the school, alongside the path along the river, I was surrounded by cherry blossoms, forsythias, and canola flowers in full bloom. It was as if all the mountains and rivers were marching towards Resurrection Day. When visiting Korea, I had hardly ever driven myself, but now driving around myself, I have soon gotten familiar with it. The traffic light system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but I quickly adapted to it. And I'm now used to parking by backing up as well. It is quite fascinating that delicious Korean food is readily available in the neighborhood just by walking out into the street. To my delight, I also found a tasty Jjajangmyeon (black bean noodle) restaurant. Still, now and then, I miss breakfast at Mimi's Cafe. So, I searched for some Italian restaurants to have some Western American cuisine.

While worshipping together through Bethel's online worship and hearing the believers pray for my thesis, I am brought back to my senses. This study is personal to me, and yet I wonder if there are any other pastors out there writing papers with the whole church praying for them like this. I often feel like taking it easy. Instead, I put in my best efforts to read from book to book and take the necessary notes for my paper. Truly, I am so grateful to all the believers at Bethel. I would especially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Rev. Gab Sihng Chung, who traded pulpits with me to deliver God's Word. And to Bethel's pastors, elders, ordained deacons, and our Kwonsa prayer warriors and deacons who are all covering for me in my absence.

There have been several first-time experiences for me here. I saw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t is the first time I drove around in Korea since 1988. It is also the first time in my ministry life to take leave during the busy Holy Passion Week and Resurrection Day. While spending the Church's busiest season of Holy Week and Resurrection Day in Korea,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and learn from several churches. Despite the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churches after COVID, it is the praying churches that are leading the way for Korea. The empty seats during COVID were now filled with praying believers. God was showing us signs, from church to church, of a new coming revival through this first special prayer meeting for Holy Week and Resurrection Day since we began taking off the masks. It is the signal that God is looking for people of prayer. He is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He is seeking the praying Church. Provisionally, the recent news of the Asbury Revival gathered attention and planted a yearning desire for revival in the believers returning to the place of worship.

Dearly beloved of Bethel, I earnestly pray that every family welcoming this Resurrection season will experience the blessings of a revived resurrection faith. May it be as if the door of the grave springs wide and the door of prayer is fully released. I hope to continue meeting with you through the morning video messages. Happy Resurrectio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갑신 목사

나의 오늘을 위한 사건, 부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1-12

1. 내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있게 된 이유 혹은 여정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끝까지 역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가능한 너무 늘어서 지 않게 요약해서)

2. 내 안에서는 '부활의 복음'(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게 되었고, 나는 이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로, 그리하여 죽음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로 살게 되었다)이 얼마 만큼 실제적인지(아니면 추상적이고 시들한지), 그 상태나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받은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교회 앞 벼락맞아 무너진 술집 이야기>에서 생각하게 된 교회의 반응에 비추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4. 부활의 복음이 '나의 오늘을 위한 사건'으로 작동 되었던 시간이 있으면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간증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오늘을 위한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돌덩이로 닫혀있던 무덤도, 인생을 가장 비굴하게 만드는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공격을 무참히 박살내고 살아 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별떡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αργη, 페사흐; κηρη, 파스카; πάσχα, 파스카)라는 구약의 유월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절망가운데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출 방법은 양을 잡아 집 현관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거나 전술을 잘 짜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피로 사망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다. 자연스럽게 그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포로 되어 그것이 인생의 쓴 뿌리가 되었고, 그런 과거를 핑계 대며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이 믿음으로 부활절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후회되는 모든 아픔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홍식 목사



IT사역팀



1. IT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전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성도님들이 편리하게 교회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YouTube를 통한 예배, 교회에서 빠르고 안정된 Wi-Fi 사용, 교회학교 스마트폰 체크인 시스템인 Kid Check-In, VBS 인터넷 등록/결제 시스템, 임직자 선출 시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 보안을 위해 교회 곳곳에 설치된 약 40개의 CCTV 및 출입 통제 장치를 통해 교회 및 BCA

의 보안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셋째, 목회자/직원분들이 교회에서 컴퓨터, 인터넷, 이메일, 사무자동화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분들이 섬기고 계시나요?

올해 MOD에서 새롭게 합류하신 4분의 집사님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IT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 엔지니어, 하드웨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IT Manager,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음이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3.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일들은 없지만, 하루 24시간/주7일/연 365일 항시 대기 및 출동의 자세로, IT팀이 필요한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현장 기술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접수된 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 감사 또는 보람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IT팀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실을 뒤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T팀의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감사의 인사와 덕담을 전해주시실 때 가장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낍니다.

5.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IT팀의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주어진 과제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IT팀이 있어야 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자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안경수 집사 it@bkc.org

대심방

생수를 마신 기쁨처럼



팬데믹 때에 이사를 오니 우리 동네는 마치 무인도 같았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이 그저 하늘과 풀과 나무와 건물만 바라보며 적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삼시간에 물 길이 열리더니 우리 부부는 순풍에 돛 단 듯 베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박목사님과 권사님께서 심방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전 한국 친정 부모님의 첫 방문 때처럼 위로와 편안함과 따뜻함이 가슴에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듯 목사님과 권사님께 베델 교회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재잘대며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말씀 드리다 보니 정든 곳을 떠나 새 동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하셨음을 또 인생의 뒷부분을 보내게 될 베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여정이 조금 길었지만 기다림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낯선 길에서 목말라 하는 자에게 기꺼이 내미는 길동무의 손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그리웠던 그렇게 부러웠던 두 단어가 '베델교회'로 이어지고 난 뒤의 대심방은 짠 물을 떠나 실로 오랜만에 물에서 마신 생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윤선 성도(무화과셀/화평목장)



교회 등록한지 오래 되었는데 심방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서 망설이고 걱정도 되고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반신 반의로 등 떠밀려 심방을

처음 받게 되었는데 목장 목사님과 도우미 권사님께서 저희집을 방문하시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심방예배는 오히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솔한 저희 가정의 상황과 기도제목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목회자를 초대하며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심방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교제의 현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스치며 눈인사만 하다가 이번에 목장 심방을 받은 후 제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베델교회를 더욱 사랑할수 있게 되었고 셀 식구들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 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옥현 집사(글로리아셀/사랑목장)

베델 선교

드디어 현장으로! 함께 가요, 니카라과 단기선교!



저희 베델교회가 오랫동안 협력 선교로 지원하고 지속해서 단기선교를 통해 섬겨온 니카라과는 중앙아메리카(중미)에 있는 나라로, 중미에서는 가장 넓지만, 또한 가장 빈곤한 지역입니다. 두 선교사님께서서는 이러한 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해 오셨으며, 특별히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현재까지 20여 개의 지교회와 현지인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서 니카라과 개신교의 부흥에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벤에셀 선교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베델교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제한 속에서도 온라인 단기선교 등 니카라과 선교의 사명을 지속하다가 올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되어 현장 단기선교를 큰 기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셔서 맡기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며,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또 함께 하는 모든 분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니카라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며, 복음이 더욱더 편안하기를 기도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현지 목회자들의 세미나, 교회건축, 단기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두

분께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들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며, 선교사님의 세 자녀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단기선교를 약 두달 앞둔 현재 참가를 헌신하신 분들이 필요보다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 (의사, 한의사)과 안경 사역 등 전문 사역자분들과, 또 아동사역, 사진사역 등으로 현지에서 귀하게 섬김을 감당하실 베델의 동역자들의 빈 자리가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5일(월)~10일(토)
- 장소: 니카라과 에벤에셀 선교센터 주변 마을/교회
- 현지 선교사: 박우석, 이현숙
- 문의: 정광목 장로 (949)232-3963

교육부-온타임 캠페인

하나님과 *의 약속

저는 주일 아침마다 K-1(킨더부터 1학년까지) 아이들과 만나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3월 한 달간, 교회 학교에서는 '온타임 캠페인(On Time Campaign)'을 시행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모든 스티커를 받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캠페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도록 해서 이것을 각인하도록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주일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와 환호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각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드리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이번 이 훈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명선 권사(교사)



교회학교에서 3월 한 달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하여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온타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썸머타임으로 바뀌는 두 번째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잘 협조해준 아이들이 너무 기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저도 예배당에 일찍 도착하여 예배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희 가족은, 주일 아침마다 어린 아이들을 깨워 9시 예배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 예배의 자리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첫 부분은 집중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10분만 일찍 움직이면 주일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들이 되어 주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세화 집사(학부모)

수요예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3월 수요예배에서는 봄에 피는 꽃 Tulip이라는 제목으로 김홍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Tulip교리는 16세기말에 네덜란드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정통 구원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Tulip신앙관이 사람들에게 심겼을 때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L 제한적 구속 :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택함 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입니다.

◎ I 불가항력적 은혜 : 선택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P성도의 견인 :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령으로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윤미 권사

◎ T 전적타락 :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포로 된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 U 무조건적 선택 : 수고와 고통 중에 그 어떤 선행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하셔서 택할 자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

Tulip시리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육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어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오늘부터 가족 Let's Be Family!

이번 여름 교회학교의 VBS 기간에 맞춰 진행될 <Let's be family!>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야나(yana)와 협력하여 이번 여름 VBS 기간 동안 한국의 보육 시설 아동들과 베델 교회 가정들을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또한 온전한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 일상의 기쁨을 누리 는 시간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마음을 나눔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품음을 실천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물질과 재능 기부, 기도 지원 등 다양한 통로로 프로그램의 협력자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 ▶ 일정: 6월 17일(토)~6월 25일(주일)
- ▶ 연락처: 김동건 집사 (714)389-164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	4/16:	①부-김 샘	②부-최동주	③부-이양수	④부-최재환
	4/23:	①부-여홍평	②부-이길수	③부-장재혁	④부-김유리
	4/30:	①부-김응진	②부-주용중	③부-김병주	④부-나승호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 4/15: 강영범 4/22: 강영재 4/29: 김도형 5/6: 고 스티브

강단꽃(4월) | 4/9: 류다정, 양석주 4/16: 노성애, 육상운, 황지은 4/23: 김동심, 선상균, 조미리 4/30: 노성애, 이은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Kyle Lee(교정치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3부 예배에는 한국 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이신 정갑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코트야드에 부활절 달걀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베델사진관 운영** 부활절을 맞아 각 예배 후에 코트야드 포토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팀 등의 동역자들과 함께 부활절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부활주일 영어 통역** 부활주일을 맞아 영어 통역 서비스가 단말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DISCORD APP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 is available for Easter Services. In addition to translation devices available in the lobby (and our English Translation YouTube Channel), we are providing translation through our DISCORD account "Bethel Translation". For first time users, please download the app and register your account prior to the worship service.



◆ **셀목자 정기모임** 돌아오는 토요 헵시바 기도회 후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서로 하나되어 감당해 나가는 동역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4월 15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

◆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음 구제사업 팀 모집** 지난 2월 6일(월)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이재민의 숫자가 150만 명, 간접적 영향을 받은 피해자는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 1차 5월 22일(월)-5월 31일(수)
2차 8월 7일(월)-8월 16일(수)
3차 9월 11일(월)-9월 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지역과 사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각 차당 18명으로 제한 (현지가 열악한 형편이기에 자매 참석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합니다.)

주최: SWM 실크웨이브/프로젝트 명칭 CES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교회학교 부활절 특별 예배**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학교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말씀과 크래프트 등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교회학교 VBS 등록** 2023 VBS가 'Keepers of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상: 영아, 유아, Kinder-5학년(K-1, 유년부, 초등부)
등록 기간: 4월 16일(주일)까지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등록처: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예살 청1 수양회** 예살 청1 수양회가 'Loser'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예살의 청년들이 더욱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4월 14일(금)-16일(주일)
장소: Green Oak ranch 수양관
문의: 공병주 전도사 (213)660-9477

◆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4월 1일(토)-4월 30(주일), 이후 등록은 \$30 추가 됩니다.
대상: Kindergarten-12학년
일정: 7월 10일-8월 4일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등록처: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위로해 주세요**

- 故 최지웅 목사님(김상범 집사의 장인, 최원신 집사의 부친)께서 3월 26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도시남 성도님(박영재 집사의 모친, 이윤경 집사의 시모)께서 4월 5일(수)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만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수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The Event for the Sake of My Present Day: The Resurrection Gospel

1 Corinthians 15:1–12

- 1.** Please try to trace back “the reasons leading to” or “the journey of how I came to be here today”, to become a part of the family of Jesus. Go as far back as you can but summarize it as much as possible without being too lengthy.
- 2.** Can you explain the extent to which the 'Resurrection Gospel' (that I am resurrected because Jesus was resurrected and lives as one who cherishes eternal glory, and therefore will not be bound by death) is practical in your life? (or if it is an abstract and lifeless concept to you?) Can you explain the reason for this condition?
- 3.** How should you respond to the statement “Do not trivialize the message you ‘ve received”? Based on the story about the bar across the street from the church that was struck by lightning and collapsed, please share your thoughts in the context of the 'reaction of the church'.
- 4.** Please share your testimony of the time when the Resurrection Gospel orchestrated your life as an event for the sake of my present day'. If you cannot think of a testimony, please share about what specific attitudes or actions that you can begin with in order to make the Resurrection Gospel an event to impact your present day.

Apply to Life

